1%대 안심전환대출 나도 갈아타볼까

9억원 이하 1주택자·다중채무자·2금융권 대출 이용자 포함
20조원 투입, 주택 가격 낮은 순서로 대상 선정…29일까지 신청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되면서 관심이 뜨겁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지만 신청 첫날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날 오전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했다. 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도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고객이 줄을 이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9억원 이하 1주택자 조건=안심대출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붙는다. 한국감정원 시세로 집값을 책정하며 지역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합산소득은 연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와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안심대출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 신규 목적 대출·만기 일시상환 불가=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위해서는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 상품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삼으며, 전세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이주비 대출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한다. 3년 이내 중도상환 때는 최대 1.2% 수수료가 붙는다.

안심대출은 2주간 접수 후 총 20조원 범위 안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대출 신청을 받은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친다.

대출 신청은 29일까지만 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 14개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안심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어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연 1.85%를 적용받는다.

우대 조건들을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금리 인하 혜택(금리 하한 1.2%)을 볼 수 있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상품

기존 대출 요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보유수	1주택자
주택가격(시가)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 · DTI 60%에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 70%/60%(기존 대출범위 내)

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은행창구	1.95	2.05	2.15	2.20
주금공 홈페이지 (전자약정 등기시)	1.85	1.95	2.05	2.10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

자료/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전자증권 시대 개막 종이증권 사라진다

법무부·금융위원회 전자증권법 전면 시행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16일부터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돼 발행·유통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독일·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증권 발행비용을 줄이고 위조·분실 등 유통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내다봤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송종욱(왼쪽 두번째) 은행장이 16일 '1호'로 가입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필승코리아펀드' 릴레이 가입 이벤트 진행

송종욱 행장 1호 가입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임직원들이 이른바 '애국펀드'로 불리는 'NH-아문디 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6일 광주은행은 '필승 펀드'가입 '임직원 릴레이 이벤트'를 이날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승 펀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할 목적으로 지난달 14일 출시됐다. 운용보수의 50%는 기초과학 분야에 장학기금으로 적립된다.

'필승 펀드' 가입에는 송종욱 은행장을 시작으로 광주은행 임직원이 잇따라 참여할 예정이다.

송 행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 및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힘을 보태고자 함께한 임직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2.22 (+13.02)	↑ 금리 (국고채 3년)	1.35 (+0.09)
↑ 코스닥	638.59 (+8.22)	↓ 환율 (USD)	1183.10 (-7.90)

한전, 중기 수출지원포털 모바일웹 서비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오픈 27일까지 이용자 경품행사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국내 전력분야 중소기업에 해외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KEPCO 수출지원포털'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지원포털'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전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력기자재 시장동향과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기존 PC 서비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포털에서는 해외시장동향, 실시간입찰정보, 수출지원사업공고, 공지사항, 제품소개 등 주요 정보와 오는 11월 열리는 '빅스포'(BIXPO)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KEPCO 수출지원포털'을 검색·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전은 오는 27일까지 이용자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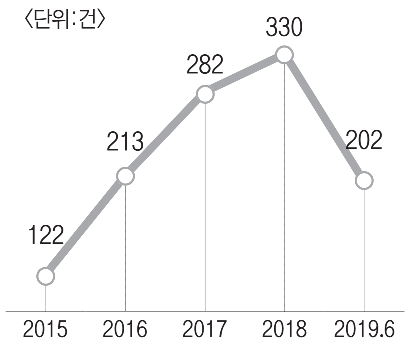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202건 적발

광주국세청…전국 2번째

■광주국세청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

〈단위: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이 적발한 위장가맹점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202건이었다.

7개 지방청이 적발한 위장가맹점은 총 1140건으로, 광주청 적발사례는 서울청(21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위장가맹점 6곳 가운데 1곳은 광주청 관할 지역에 있는 셈이다. 광주청 적발 건수는 ▲2015년 122건 ▲2016년 213건 ▲2017년 282건 ▲2018년 330건으로 3년 새 170.4% 급증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세금 탈루에 악용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국민의 제보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금감원, 내일 광주서 기업공시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18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내용,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또 유통공시·전자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규제 등 기업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각 케이스별 위반사례를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등도 소개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인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